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 1960년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 Focus in 1960's

윤 금 선(Keum-Sun Yeun)**

< 목 차 >

I. 머리말	1. 도서관의 독서 운동
II. 1960년대 독서 경향	2. 마을문고와 독서 운동
1. 일반 독서 경향	IV. 196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의 의의
2. 학생 독서 실태	- 맺음말을 대신하여
III. 196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	

초 록

이 연구는 196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과 독서 경향을 조명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시기는 공교육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학문적이며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1960년대 독서 및 독서 교육의 제반 현상들을 주로 신문 자료를 토대로 기술함으로써, 일종의 '독서 사회'의 형성 과정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살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첫째, 1960년대의 독서 경향으로써 1) 일반 독서 경향 2) 학생 독서 실태를 둘째, 독서 대중화 운동으로서 1) 도서관의 독서 운동 2) 마을문고와 독서 운동을 등으로 대별하여 그 양상을 고찰했다.

주제어: 독서 대중화 운동, 독서 경향, 독서 교육, 도서관, 마을문고

ABSTRACT

This research allows purpose to illuminate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and readers' interest in the 1960's. This period, there were scientific and national interests about 'Reading' as culture from society whole as well as on public education situation. This research describes reading and phenomenons of reading education on the basis of newspaper data mainly in the 1960's, observed formation process of kind of 'Reading society' in sociological side. Detailed research contents as following same. First, it was studied readers' interest, 1) general readers' interest, 2) student readers' interest. Second, it was investigated reading movement, 1) the library and reading movement, 2) village library and reading campaign.

Key Words: Reading Popularization Movement, Readers' Interest, Reading Education, The Library, Village Library

* 이 논문은 2006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east124@dongduk.ac.kr)

• 접수일: 2007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 2007년 6월 1일 • 최종심사일: 2007년 6월 22일

I. 머리말

독서(책읽기)라는 현상은 근대적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20년대 일제 강점기로부터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파급력을 가진 대중적 매체에 독서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게재됨으로써 독서 현상이나 독서 교육 현상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이와 관련된 담론이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¹⁾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책읽기의 근대화는 해방 이후에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대에 비하여 사회 전반에서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학문적이며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되었고,²⁾ 나아가 교육적인 시급성으로 인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었다.

특히 1960년대는 직전의 전쟁기로 인해 주춤했던 독서 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이고 공교육 내에서도 활성화되던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 아닌 이 시기의 독서 경향과 독서 운동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고는 독서 및 독서 교육의 제반 현상들을 주로 신문 자료를 토대로 기술함으로써 일종의 ‘독서 사회’의 형성 과정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살필 것이다. 본문에서 다음 구체적인 논의는 첫째, 1960년대의 독서 경향으로서 1) 일반 독서 경향 2) 학생 독서 실태를, 둘째, 196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으로서 1) 도서관의 독서 운동 2) 마을문고와 독서 운동 등으로 대별하여 그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의 경우 일반과 학생의 독서 경향을 대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독서 경향과 공교육 내의 독서 경향을 구분하여 살피고자 하며, 둘째의 경우 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건립된 도시 중심의 도서관과 민간 차원에서 시작되어 농어촌까지 확산된 마을 문고라는 차별성을 고려하여 그 특징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1960년대 독서 경향

1. 일반 독서 경향

이 장에서는 1960년대 일반 독서 경향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당시 언론에서는 매 일정 시기마다 각 도서관 열람자 수를 남녀 비율, 연령별·직업별로 제시해 주고 있으며,

1) 이 연구는 근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시론으로서 일제 강점기, 건국기, 195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을 다룬 기존 논의의 후속 연구에 해당된다.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 운동 연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7집(2005. 12), 윤금선, “讀書新聞 고찰,”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5집(2005. 6),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7집(2006. 6).

2) 김혜정, “근현대 민중어문 기초연구 전국학술대회 발표문”(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p.87.

독서 분야의 순위를 밝혀 주고 있어 당대 독서 경향을 파악하게 한다. 먼저 60년대 초반의 양상을 드러내는 기사로 주목되는 것은 “讀書를 통해 본 社會相”(『朝鮮日報』, 1962.6.15)이다.

(6) 圖書館을 利用하는 閱覽者는 어느程度 固定的인 層이다. 昨年까지는 學生이 七〇%, 無職이 二五% 가까이 되며 나머지 五%가 公務員, 軍人, 銀行, 會社員, 教育, 宗教順 常例이었다. 더구나 無職 二〇%란 거의 高等考試 아니면 大學入試準備生(...) 그러나 革命一年後의 前月中의 統計를 볼 때 學生이 六〇%, 無職이 三〇% 그리고 나머지 一〇%가 公務員, 軍人, 商工, 教育, 종교, 은행, 會社員의 職業을 가진 順으로서(...) 圖書閱覽에 있어서도 從來와 같이 言語文學이 首位이고 政法經濟와 理學 醫學이 他書를 壓倒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全書 叢書와 같이 基本的인 調查 圖書가 激增(...) 舊 新聞과 雜誌가 훨씬 많이 利用(...) 日本에서 잘 팔린다는 外國의 譯書와 日本의 “베스트·셀러”는 無條件 短時日에 競爭의 으로 出版되고(...) 今年 들어서 特色 있는 出版은 世界美術全集, 世界音樂全集, 李光洙全集, 兒童을 위한 全集 등이 續續나온다는 것과(...) 隨筆類가 二十種 가까이 계속해서 나왔다.

“讀書를 통해 본 社會相”(『朝鮮日報』, 1962.6.15)



〈그림 1〉 “讀書를 통해 본 社會相”(『朝鮮日報』, 1962.6.15)

인용문을 보면 당시 전년도(61년)까지 도서관 열람자는 학생과 무직자(대개 고등고시나 입시 준비생)가 9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서관의 열람실화 즉 “學生 공부방”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었다. “圖書蒐集과 保存을 目的”으로 하는 ‘참고도서관’이 좌석 위주, 특히 수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자로 대부분 채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1962년도에 들어서면 실무 종사자인 열람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필자는 그 이유로 “現場 教育이리든가 企劃業務等 實務生活에 있어서도 專門的인 調查가 讀書를 通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時代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知識을 위한 독서가 필요한 것의 反映”³⁾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년도까지 열람책은 주로 언어, 문학, 정법, 경제, 이학(理學), 의학 순이었다. 그리고 새로이 전서(全書)와 총서(叢書) 등의 서적이 읽히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들의 열람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신문과 잡지 열람자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는 각 학교와 관공서 및 사회 단체에서 사료적인 조사들을 많이 하던 시기였고, 손쉬운 자료집부터 간행하려는 출판사 관계자들의 열람에서 기인한 것

3) “讀書를 통해 본 社會相”(『朝鮮日報』, 1962.6.15).

이다. 이 시기 열람 경향 중 또한 주목되는 것은 일본 문학에 대한 관심이다. 비록 주춤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후 60년대 중반까지 일본 소설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⁴⁾ 또한 전집류가 유행했고, 전대에 읽히지 않았던 수필류가 애독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인쇄술이 궤도에 오르고, 식자층이 고정되어 가며, 독서 대상이 '思索的인 方向'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밝혔다.

1960년대 초기 독서 경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사로 “綜合誌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讀書層”(『朝鮮日報』, 1960.8.3)을 들 수 있는데, 잡지 구독율을 통해 독서 경향을 살핀 글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당시 대표적인 잡지로는 『思想界』, 『새벽』, 『세계』⁵⁾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학생들은 주로 『思想界』를 읽었으며, 잡지 구독자로는 교원층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고, 일반인은 거의 읽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1960년대 중반의 독서 경향도 초기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서관의 열람 경향은 전대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예로 “24일부터 독서주간”(『中央日報』, 1965.9.24)에서는, ‘국립도서관’ 집계를 통해 독서 경향을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① 어문학 ② 정·법·경제 ③ 사회교육 ④ 역사·지리 등의 순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수위(首位)를 차지하는 분야는 여전히 어문학이나 정·법·경제 등으로 전 시기와 유사하다.

이 시기의 독서 경향은 주로 언론사들의 정기적인 베스트셀러 보도를 통해 더 잘 드러나기도 한다. 일례로 중앙일보사는 매월 두 차례 ‘베스트셀러’를 조사하여 게재하였다. 그 예로 “본사가 조사·집계한 전국 베스트셀러”(『中央日報』, 1966.12.8), “생명의 향약”(『中央日報』, 1966.12.9)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에서는 전국의 300여 지사·국망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532개소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당시 일본의 『朝日新聞』의 10,000,000원(日貨) 현상당선작인 『빙점』(미우라·아야꼬) 등 일본 소설들이 한국 독서계를 석권하고 있었다. 『빙점』, 『원죄』⁶⁾ 등은 적어도 10만 부는 팔렸으리라 추산되었는데 해적판이 주로였다. 이 소설들은 당시 일본 문단에서 비판받기도 한 것으로,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빙점』은 일본 월간 여성지 연재 도중에 한국에선 책으로 발간되었고 게다가 일어 원서를 그대로 복사한 『빙점』원판이 암시장에 쏟아져 나와 팔리기도 했다. 국내 현상에 대해서 일본의 『朝日新聞』 사회면에서는 ‘문화의 식민지화’라는 톱(top)기사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빙점』과 같은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들이 여성들에게 많이 팔렸다는 점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본사조사 전국 베스트·셀러”(『中央日報』, 1966.12.27)에서도 중반기의 독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4) “본사가 조사·집계한 전국 베스트셀러”(『中央日報』, 1966.2.8), “생명의 향약”(『中央日報』, 1966.12.9).
 5) “二月의 綜合雜誌”(『朝鮮日報』, 1960.2.14) “思想界=霸氣없고 無思想, 文學特輯은 좋은 企劃 새벽=成果적은 세특輯 社會主義問題는 適切한 掲載, 世界=無國籍의 怪物 늦지만 翻譯솜씨는 우수”
 6) 당시 『빙점』은 『양치는 언덕』, 『원죄』, 『사랑이 흘러간 곳』, 『언덕 위의 양떼들』 등의 다른 제목으로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7) 소설 부문은 순위의 변동이 더러 일어났을 뿐이지만, 비소설부문은 대폭적인 변동이 일어났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베스트”의 순위에 등장한 것은 건전한 독자에의 발견이다. 삼포능자 “봄”은 약간 퇴조를 보인다(...) 그러나 소설의 “베스트·셀러” 등 6개가 외국물의 번역판(...) 비소설부 문에는 『기다리는 부안』(박경리저), 『밤에 쓴 인생론』(박목월저) 『물같이 와서 바람같이 가다』(오하 섭저)가 새로 등장했다.(...) 전혜린 “봄”은 여성독자들이 유지하고 있다. 여고생들이 주로 고객이라는 서점의 얘기다. 『재벌』이 5위에서 일약 2위로 “점프”했다. 재벌에의 선망과 수수께끼가 얽힌 흥미의 자극일 것이다. 『재클린의 추억』이 7위에서 4위로 앞섰다.(...) 새 “베스트”인 『제2의 선택』은 김형석 교수 고정 독자들이 작용한 때문(...) 2,3백원의 정가가 연말·년시의 호조

“본사조사 전국 베스트·셀러”(『中央日報』, 1966.12.27)

위의 기사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잡지 부문에서는 여성지들이 단연 압도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5개의 ‘베스트’ 가운데 3개가 여성지였다. 또한 순위 잡지는 대중지로서 이른바 교양종합지를 물리치고 있는 실태였다. 당시 출판물 등은 주로 여성 독자를 확보하는 기획물이면 성공하는 판도를 보였다. 이 글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가정의 경제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을 두었다.

1960년대 말 독서 경향은 “外國新刊에 인기”(『中央日報』, 1969.1.18)라는 기사에 잘 드러나 있다. 이 기사문은 여론조사를 통해 독서 경향을 살피고 있어서 특기할 만한데, ‘대한출판문화협회’의 독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일반 독서층의 취향을 보면 일반도서(잡지류 포함)는 연평균 16권 이상을 읽는 자가 제일 많았으며 남자는 대체로 국내 문학서를, 여자는 외국 문학서를 더 선호하였다. 도서 구입비도 대체로 남녀 월 500원을 소비하는 층이 압도적이지만 여자의 경우 월600~1,000원의 도서비를 들 이는 층이 남자에 비해 더 많았다.(남자28%, 여자40%). 잡지는 남자의 경우 20~30세에서 월 3,



〈그림 2〉 “外國新刊에 인기”(『中央日報』, 1969.1.18)

4종씩을 보는 사람이 가장 많고 31세 이상은 월 1, 2종을 보는 사람이 제일 많으며 여자의 경우는 남자와 달리 연령층을 불구하고 월 1, 2종을 구독하는 편이 수위를 차지했다. 하루에 독서하는 시간은 남녀 다 같이 1~2시간씩이 압도적으로 많고 2시간 이상 독서하는 층은 극히 적었으며 그 경향은 여자의 경우가 더 심했다.

문학 작품의 독서 경향을 보면 남자는 15세까지와 30세 이상이 국내 문학 작품을 많이 읽는데 비해 여자는 일률적으로 외국 문학 작품을 더 많이 읽었다. 책을 구입하는 동기와 방법은 남자의 경우는 신문·잡지의 서평 소개란과 광고를 보고 구입하는 편이 제일 많고 여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추천을 통해 구입하는 편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외판원의 권고를 받고 책을 산다는 수는 남녀 총 응답자 1,104명 중 19명에 불과했다. 당시는 외판원들의 가정 방문이 잦던 시기인데 실제로 도서 판매에 큰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읽고 싶은 책들은 남자는 ① 국내 문학(소설과 수필) ② 철학 ③ 역사 ④ 사회과학 ⑤ 순수 과학 순이고, 여자는 ① 국문학 ② 국내 문학 ③ 철학 ④ 역사 순인데 여성은 순수 과학서를 희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가장 감명을 받았던 책은 남녀 다 같이 외국 문학을 드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 문학서 중에는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 등의 고전 작품도 들어 있지만 그 70%가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신간(新刊)들이었다. 국내 출판물로는 소설류를 읽는 층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이 수필집이었다. 이상의 설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대한출판문화협회’ 독서 여론 조사(1969년 1월) 내용 정리

설문내용	남	여	기타
독서권수	(年) 평균 16권 이상(남: 국내 서적, 여: 외국 서적)		
도서구입비	(月) 평균 500원		600~1,000원의 도서구입비 소비의 경우(남자 28% 여자 40%)
잡지구독수	(月) 평균 3, 4종(20~30세) 평균 1, 2종(31세 이상)	(月) 평균 1, 2종	
독서시간	(日) 평균 1~2시간		
읽는 문학작품	국내 문학 서적	외국 문학 서적	
서적구입 동기	신문, 잡지의 서평란, 광고	타인의 추천	외판원의 권고
읽고싶은 책	① 국내문학(소설과 수필) ② 철학 ③ 역사 ④ 사회과학 ⑤ 순수과학 순위	① 국문학 ② 국문학 ③ 철학 ④ 역사 순위	
감명깊은 책	주로 외국문학서, 국문학서 중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 국내출판물은 소설류, 수필집		

지금까지 1960년대 독서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朝鮮日報』 1968년 8월 15일자 “讀書傾向”에서 일제 강점기로부터 당시까지 20년 동안의 독서 경향을 정리하고 있는 글이 있어 주목된다. 투고자는 당시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선영(李宣瑛)으로서 그가 정리한 독서 경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서(司書)로 37년째(해방 전 근무 포함) 근무하고 있는 그

(63세)는 도서관에 관한 한 “살아있는 辭典”과 같은 존재였다. 그는 한마디로 “시대는 바뀌어도 독서경향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건국 당시나 그 후 20년이 지난 시기나 국립중앙도서관(國立中央圖書館)에서 대출되는 책은 늘 일정한 분포를 보였다. 즉 건국 당시나, 자유당(自由黨) 때나, 4·19, 5·16 이후를 막론하고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어학과 문학 관계 서적들이며, 그 다음은 잡지나 사전류였다.⁷⁾

물론 4·19 이후, 특히 ‘조일국교정상화(朝日國交正常化)’ 이후부터 일본어 교본 등이 잘 나갔고, 또 정부의 경제 개발 정책이 시작되고부터 기술 계통의 책이 조금씩 읽히긴 했어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 수는 극히 적은 편이었다. 그가 지적한 색다른 독서 경향은 소위 “受驗서적” 독서붐이다. 취직 시험이 있을 때는 흔히 법률 서적이거나 경제원론 따위가 서가에 들어갈 틈도 없이 잘 나간다는 것이다. 문학 관계 책들이 항상 수위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때의 베스트셀러 소설들, 예컨대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 해외 화제작 등이 많이 읽히는 데서 기인한다고 했다. 그는 소위 “이야기冊 독서”라는 독서 발전의 초보적 단계가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독서 경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걸음 더 나간 단계인 “非小說類독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⁸⁾

1960년대 이전의 독서 경향은 주로 도서관 통계의 제시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⁹⁾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서서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은 도서관 통계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조사, 설문 조사 등 실제 리서치를 통해서도 독서 경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야별로 보면 주로 어문학이 지배적이고, 일본이나 서구 번역 문학들이 애독되던 시기라 하겠다. 아래 <표 2>는 앞에서 언급한 1960

<표 2> 1960년대 일반 독서경향

연도별	독서 경향	기타
1960년대 초	[1960년도] 어문학 독서 수위, 『思想界』, 『새벽』, 『세계』 등의 잡지 구독	
	[1961년도] 직업별: 학생70% 무직25% 기타15% 열람서적: 언어, 문학, 정법, 경제, 이학, 의학 순	
	[1962년도] 직업별: 학생60% 무직30% 기타10% 열람서적: 어학이 수위, 전서, 총서류 독자 증가, 신문, 잡지의 독자 격증, 번역서와 일본의 베스트 셀러, 이광수 전집, 아동 전집류, 수필류의 출판 증가.	
1960년대 중반	문학류 지배적. 베스트셀러: 소설류 『빙점』(『양치는 언덕』, 『원죄』, 『사랑이 흘러간 곳』, 『언덕 위의 양떼들』 등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 『데미안』(헤르만 헤세), 비소설류: 『기다리는 부안』(박경리), 『밤에 쓴 인생록』(박목월), 『물같이 와서 바람같이 사라지다』(오화섭), 『제2의 선택』(김형석), 기타 『재벌』, 『재클린의 추억』, 전해린 작품 등	해외 문학 번역류가 지배적으로 읽힘
1960년대 말	문학, 철학, 역사, 사회과학, 순수과학 순으로 애독	남: 국내서적 애호 여: 국외서적 애호

7) 이선영은 도서관 집계를 통해 분야별로 가장 많이 읽히는 순서는 어학, 문학, 잡지, 사전, 일반 사회과학, 철학, 종교, 이학, 의학 등이고 공학, 미술, 연예 등에 관한 책은 거의 읽히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순서는 20년내 줄곧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8) 윤금선, 전계논문(2006), pp.358-359.

9) 윤금선, 전계논문(2005), pp.129-164. 윤금선, 전계논문(2006), pp.333-375.

년대 일반 독서 경향의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¹⁰⁾

2. 학생 독서 실태

근대 계몽기부터 아동 교육은 여성 교육과 함께 늘 중시되어 왔던 바이기도 하다.¹¹⁾ 해방 이후도 역시 아동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전후 1950년대부터 아동 교육 중에서도 독서 교육이 부각되고 아동의 독서를 촉구하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아동들에게 무엇을 읽힐 것인가를 아동 자체의 연령이나 정신 발달, 생활 감정과 연결지어 논한 강소천(姜小泉)의 “兒童과 讀書”(『朝鮮日報』, 1954.9.6), 교사들의 자질과 독서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동 출판물 부진, 학교 독서 지도 부재, 정서 교육 경시 등에 대해서 비난한 이원수(李元壽)의 “兒童과 讀書”(『朝鮮日報』, 1955.2.26), “兒童文學과 讀書運動”(『朝鮮日報』, 1955.4.30) 등은 그 대표적인 글들인데, 여러 신문에서 주로 아동 문학가들이 중심이 되어 아동 독서 교육의 문제점이나 방향성을 논의했다.

1960년대에도 아동 독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였다. 본고에서 다룬 학생 독서 실태는 초등학교, 중고생, 대학생 등 수준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신문지상에는 학부모(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 독서 실태와 그 지도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이 시기 아동 독서와 관련되어 가장 문제시된 것은 만화에 경도된 아동들의 독서 실태였다. “惡書出版이 판을 치고”(『中央日報』, 1960.10.20), “어린이들의 讀書傾向”(『朝鮮日報』, 1966.7.19),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자”(『中央日報』, 1966.1.13)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장정도 천박한 만화, 폭력적인 내용의 만화에 빠져 있는 아동들의 독서 경향을 비판하고 있는 기사들이다.



〈그림 3〉 만화에 집착하는 어린이 독서 경향을 비판하는 『朝鮮日報』의 “어린이들의 讀書傾向”(1966.7.19)

10)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에 일관적인 제시가 아니라 특징적인 면들만을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후 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보완될 사항이다.

11) 윤금선,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0집(2002), pp.67-70.

(8) 폭행·살인·강도·음란 등 행위를 골라 다룬 만화책들이 방학철을 맞은 만화가게에 나돌고 있다
 (...) 만일 그들의 때 없는 자녀들이 만화가게에 들러 읽는 책이라 하는 것이 기껏 “밤에 이루어지다”,
 “외로운 꽃”, “놀아난 청춘” 같은 것이 아니면 폭력을 영웅화하는 타기할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누구나 다 모퉁이 송연해 질 노릇이다.

“어린이를 위한 책을 쓰자”(『中央日報』, 1966.1.13)

예시된 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제목에서부터 선정성을 보이는 만화들은 폭력적인 내용들로 당시 아동들의 올바른 독서에 저해 요소로 작용했다.

“惡書出版이 판을 치고”(『中央日報』, 1960.10.20)에서는 아동 출판물의 경향을 분석하기도 했는데, 제시된 바에 따르면 교양과 오락물(동화 만화 따위)이 108종, 학습 관계 참고서가 315종으로 학습 관계 참고서가 높았고, 그 외 오락물들이 지배적이어서 권장할만한 어린이 책은 극히 적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서점에 나와 있는 아동 도서 중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이 『세계명작선집』(東國文化社刊, 學園社刊)과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啓蒙社) 등 전집류가 지배적이었는데 학부모들의 구매력과 상관된 것이었다. 당시 어린이 잡지로는 『만화세계』, 『만화학생』, 『소년』 정도에 불과했다.

이 글에서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서울 시내 국민 학교 대상(2, 5학년)으로 가장 좋아하는 책을 조사하고 순위별로 보여주고 있다.¹²⁾

(9) (2학년 남412, 여39) 1. 만화 2. 동요집 3. 동화집(5학년 여98) 1. 세계 명작 2. 만화 3. 위인전
 4. 동화집(5학년 남 89) 1. 위인전 2. 과학애기 3. 만화 4. 세계 명작(『삼총사』, 『이슈이야』, 『안데르센 동화집』, 『울밑에 선 봉선화』, 『모래알고시』, 『아기잠자리』 등 권영섭, 마해송, 강소천 등의 작품)

“惡書出版이 판을 치고”(『中央日報』, 1960.10.20)

인용문을 보면 학년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만화가 높은 비율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 만화가 아동들에게 얼마나 지배적이었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과외공부와 함께 불량 만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한국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좋은책 읽히기’를 위한 좌담회를 가졌다. 모임에는 윤석중(새싹회장), 문동환(한국신학대학교수), 임의도(중앙교육연구소) 등과 8명의 어머니 회원이 참석했다.

(10) 우리나라의 어린이 도서와 독서의 경향은 거의가 만화에서 그치고 있는 셈이다. 모 초등학교 5학년 아동에게 동화작가 마해송씨를 아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다는 어린이가 단한명(90명

12) 당시 『東亞日報』에서는 “서양의 아동문화”란을 통해 외국의 어린이들은 무엇을 많이 읽나를 시리즈로 연재하여 해외와 국내 아동의 독서 경향을 비교 분석하고 있으며, “27개국서 모인 동심의 바람들-국제 아동도서전”(『中央日報』, 1967.11.16) 등에서 해외 동향을 살펴보고 있음도 특기할만 하다.

중). 작품을 읽은 어린이는 한명도 없었다. 전국의 국민학교 아동의 80% 이상이 교과서 이외에 읽는 책은 만화뿐. 동화·동시·명작소설은 아동잡지에서 읽어보는 정도. 현재 국내에서 발행되는 어린이 잡지는 7~8종. 이 잡지에서도 평균 30% 이상이 만화고 그중의 한 잡지는 52%를 만화로 채우고 있다.

“병드는 새책 좋은 책을 읽히자”(『中央日報』, 1968.2.3)

인용문은 좌담회의 토의 내용으로 여기에서도 어린이들의 독서 대상이 만화에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글에서도 만화 내용을 문제시 하고 있다. 80% 이상이 ‘007 살인 만화’가 아니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암울한 내용이 많다는 결론이었다. 만화책의 장정도 거칠고 야비한 색채는 물론이며, 거의가 일본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산하단체와 협력하여 어린이 독서 지도를 위한 어머니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문교당국에 어머니들의 의견을 건의하고 전국 어린이 독서 경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양서추천위원회’를 구성,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어린이 도서 구입할 수 있도록 60여 권의 어린이책을 추천 발표했다. 양서 추천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8명의 위원이 70여개 출판사에서 발행한 아동문고를 ◇소년 소녀 생활과학 ◇학습과 학문고 ◇소년 소녀 세계위인 자서전집 등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¹³⁾

‘한국대본업정화협회’에서도 어린이들이 불량만화 등 악서(惡書)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규제하여 정부시책을 돕도록 결의하고 ‘아동 독서 윤리 확립’ 전국대회를 가졌다. 이 협회에서는 ① 외설 및 불량 서적의 범람을 막고 ② 아동·청소년의 정서 순화를 돕는 책만을 비치하여 독서를 지도하고 ③ 소년 경찰 활동에 적극 참여 ④ 악서 추방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¹⁴⁾

특히 방학 기간에는 아동 독서 지도 관련 기사들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그림 4〉 “여름방학 어린이 讀書指導”(『中央日報』, 1967.7.27)

13) “어린이용 양서 60권 선정발표”(『中央日報』, 1968.8.6).

14) “불량책”(『中央日報』, 1968.7.25).

(11) 우선 무슨 책을 재미있어 하는가를 어머니가 파악한다. 만일 모험물에 관심이 있으면 “툼소아의 모험” “알프스의 푸른 깃발” 등 모험과 탐험물을, 동물을 좋아하면 동물의 습성·본능·애정을 얘기한 “시튼이 동물기” “파블의 곤충기” 등 아이들의 흥미에 부합되는 것을 구해서 읽도록 유도한다(...) 대개 부모들은 아동전집물을 사서 아이들이 스스로 흥미를 느껴 읽어주기를 바란다(...) 국민학교 아동에게는 약간 무리한 기대(...) 저학년일 때는 어머니와 오빠들이 함께 읽어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독서의 감상을 강요하면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이 부담이 된다. 다만 책 읽는 날짜를 기입하고 재미 있었다 없었다 정도로 적게 하든지 간단한 느낌을

“여름방학 어린이 讀書指導”(『中央日報』, 1967.7.27)

(12) 유치원과 저학년 아동에게 알맞은 책은 배영사간 “그림책” 교학사간 “그림책” 계몽사간 “그림동요책”. 3학년 이상의 어린이가 읽을 책은 문원사의 “학급문고” 어문각의 “아동문고” 승문사의 “아동문학전집” 유문화사 “한국아동문학독본”. 4학년 이상 어린이는 정음사의 “한국소년 소녀전집” 계몽사의 “소년소녀한국 전기전집” 삼화출판사의 “소년소녀세계전기전집” 일신사의 “세계위인전” 계몽사의 “소년소녀과학전집” 그리고 요즘 출판된 휘문출판사의 “세계아동문학상전집”

“여름방학 어린이 家庭指導”(『中央日報』, 1968.7.25)

위와 같은 아동 독서 교육 관련 기사는 주로 여성란에 게재되어 있는데, 어머니를 겨냥한 기사로 학부모의 아동 독서 지도를 위한 안내서로서 역할하였다. 특히 독서 지도에서 어머니가 함께 하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기사가 많았다. 『朝鮮日報』나 『東亞日報』 등의 언론사에서도 “어머니 학교”라거나 “어린이 독서 지도”란 등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의 독서 지도 방법을 제시하거나 이를 위한 어머니들의 상담 창구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¹⁵⁾

하나 특기할만 것은 이 시대에 들어서 읽기와 쓰기 교육을 연계시키는 독서 지도가 지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글짓기 교실”(『朝鮮日報』 1960.6.25), “어린이”(『朝鮮日報』 1963.9.28)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3)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는 글을 쓸만한 재료가 있다. 그 좋은 예의 하나로 자기가 감명있게 읽은 책의 소감을 쓰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리고 독서생활에 있어서 훌륭한 태도이다 감명있게 읽은 책은 소감을 쓰는 버릇을 기르자.

“글짓기 교실”(『朝鮮日報』 1960.6.25)

15) 이 지면의 한 기사인 “번져가는 독서열 어린이 반짜서 책읽기”(『中央日報』, 1968.3.14)도 특기할만 하다. 그 내용을 보면 한꺼번에 많은 책을 살 수 없으니, 반을 짜서 책을 돌려 읽는 운동을 펼치자는 것이다.

<책의 장거리>사임당 심씨는 이음곡선정의 어머니이신데, 심씨는 어머니로서 훌륭하신 분이 아니라 과거로도 유명하시고, 심씨는 지금부터 450년전에 강릉에서 진사라는 벼슬을 가진 신명파라는 본의 집사람도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송씨와 제주로 사단같은 놀라게 했으며 19세에 이음수단 본에게 시집가 이음곡선생은 남아서 출궁한 것으로 만들 이야기.
 <노년집>에나 여자의 필요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아깝도 영리한 가보라.
 . 사임당 심씨는 몇번동안 사셨는지 알고싶다.
 사임당 심씨에게 학자 이음곡 선생이 남셨을때 사임당 심씨의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음곡 선생은 또 무슨일을 많이 하셨는지 알고싶다.

<그림 5> “어린이” (『朝鮮日報』, 1963.9.28)

“독후감 쓰는 훈련”이라는 부제를 단 위 기사에서는 글의 소재는 독서를 통하여 쉽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로빈훅드를 읽고”라는 학생의 독후감을 평하였다. “어린이”(『朝鮮日報』 1963.9.28)라는 지면도 마찬가지로 독후감을 통한 쓰기교육을 지도하는 란이다.

이외 문교부 편수관인 홍용선의 투고인 “가을은 독서의 계절”(『朝鮮日報』 1960.9.14)에서는 독서의 목적을 1. 여러 가지 소식을 알기 위하여 신문이나 편지 따위를 읽는 일, 2. 한가한 시간을 즐기기 위하여 동화나 소설책을 읽는 일, 3. 공부나 연구를 위하여 교과서나 고서를 읽는 일 등으로 분류하고 그와 연관된 독서 지도를 하고 있으며,16) “꾸준히 읽는 습관”(『朝鮮日報』 1966.11.27)에서는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독서하는 습관을 기를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燈火可親記”(『朝鮮日報』 1967.9.7)에서는 독서의 내용을 잘 고르는 동시에 독서의 시기를 잘 골라야 할 것이라 제언했고, “앞으로의 국어공부”(『朝鮮日報』 1967.10.25)에서는 ‘교과 독서’와 연관지어 묵독, 속독, 낭독하기, 문학

작품 바르게 읽기, 도서관의 적절한 이용과 책 고르기 등을 지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신문 지면에는 주로 어린이 독서 관련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종종 중고생들의 독서 경향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중 1960년대 중고생의 독서 경향을 제시하는 기사로는 “中高校生들의 讀書傾向”(『朝鮮日報』, 1962.7.10)이 주목된다. 이 글은 ‘중앙교육연구소(中央教育研究所)’가 조사한 중고교생의 독서 경향이다. 설문지를 통한 조사 결과로서 다음과 내용을 볼 수 있다.

中·高校生들의 讀書傾向

이 글은 中央教育 中央教育研究所調査中心으로 민한 男女 中·高生 1000名에 對하여 中央教育研究所에서 中·高生 學生들의 讀書傾向에 관한 調査와 그 結果에 관한 一研究中에서 특히 男女 中·高生의 讀書傾向을 간추린 것이다. 心理的으로 가장 認識性이 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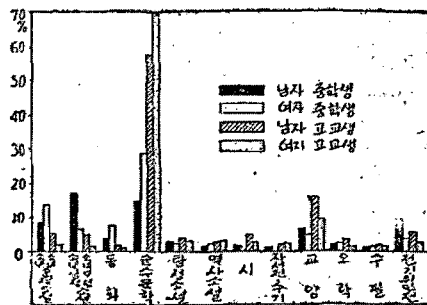
高 校 生 愛

본의 專門에 관한 事項의 統計는 이글 外로 是는 敎育은 물론 宣傳 指導에 對한 參考가 되리라 믿어 專門인을 紹介하기로 한다. <編輯者註>

<그림 6> “中高校生들의 讀書傾向”(『朝鮮日報』, 1962.7.10)

16) “讀書有感”(『朝鮮日報』, 1959.10.20)(李鳳順)에서 독서 활동을 “① 知識의 探究를 目的으로 하는 專門인 研究를 위한 讀書 ② 批評을 위한 讀書 ③ 一般敎養을 위한 讀書 ④ 趣味와 娛樂을 위한 讀書”로 나눈 것과 비교된다.

먼저 남자 중학생들은 순수문학과 만화를 가장 많이 읽고 또 탐정, 모험, 전쟁 등의 소설과 순수소설을 즐겨 읽었다. 여자 중학생도 남학생과 비슷하지만 동화나 탐정 모험보다는 순정소설을 더 읽었다. 남자 고교생들도 역시 순수문학이 으뜸이고 다음에는 교양서적을 많이 읽는 편이었다. 그리고 남자 중학생들이 즐겨 탐독하는 위인전 같은 전기물이 여전히 애독되고 있었다. 그러나 남자 고교생이 되면 소년소녀용 서적 독서율이 결정적으로 줄어드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여자 고교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자 고교생은 대부분 성인을 위한 문학 작품, 특히 애정소설에 집중되고 그밖에 교양을 위한 책들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다.



〈그림 7〉 중앙교육연구소의 통계그래프(1962)

‘중앙연구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중고교생들의 독서 경향을 조사해서 발표하기도 했는데 “中學生이 되어도 漫畵가 좋아”(『朝鮮日報』, 1962.4.22)라는 다른 기사를 보면 중고생은 만화를 많이 읽고 고교생은 문학이 으뜸이었다. 이 조사에서는 교사들의 독서 경향을 함께 조사하기도 했는데, 교양서에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 독서 지도와 마찬가지로 중고생 독서 지도에 관한 기사들도 보인다.

(14) 양서가 적은 우리 출판계의 현황, 학교마다 많은 도서가 구비되고(예산 부족의 문제로 다양한 책을 사 놓지 못하는 현실), 책을 빌려다 볼 수 도서관이 증가되어야 “학생들에게 읽히기 전에 선생님으로서 반드시 그 책이 어떤 학생에게 읽혀져야 할 것이며 그러한 책들은 학생들이 바르게 읽히기 위하여는 어떠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독서를 지도하는 분 자신이 출판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책이 출판되는 족족 그것을 다 구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따금 책사에 들러서 훑어보거나 신문에 나오는 신간광고 신간평같은 것을 유심히” 독서 지도는 곧 생활지도이기도 합니다.

“中高等學生의 讀書指導”(『朝鮮日報』, 1960.9.7)

인용문에서는, 학교마다 양서 구비, 도서관의 증설, 독서 지도, 교사의 자질 향상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아동 독서 교육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에 대한 기사도 종종 실렸다. 1960년대 초의 독서 경향으로는 “大學生들의 讀書傾向”(『朝鮮日報』 1960.1.29)이라는 기사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신문에는 남녀 대학생의 독서 경향을 드러내는 통계가 드문데, 이 글은 『교육연구』 제50호에 게재된 설문 조사 결과를 기사화한 것이다. 서울 시내 남녀 대학생 각각 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여자대학교(이대, 숙대, 3학년 문·이과 학생)와 남녀 공학 대학교(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사대, 서울문리대, 고대, 서울공대생 천명. 학년별 구별 없이)에서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1960년대로 들어선 이 시기에는 대부분이 외국 소설을 탐독하고 있었고(『醫師 지바고』, 『테스』, 『카라마조프의 형제』, 『죄와 벌』 등), 잡지로는 『女苑』, 『思想界』, 『뉴스위크』, 『라이프』 등을 구독하였다. 이 조사에서 남녀 대학생들이 모두 전문 분야 서적을 읽지 않으며, 연구나 취미보다는 교양을 위한 독서가 전체의 60% 이상을 점한다고 밝혔다.¹⁷⁾

1960년대 중기의 여대생의 독서 경향을 보여주는 기사로 “여대생이 읽는 잡지”(『中央日報』 1967.4.20)는 숙대 신문사가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여대생 거의(97%)가 잡지를 읽고 있었다. 그 이유는 “교양을 쌓기 위해서”가 대부분이고 28%가 심심풀이로 본다고 답했다. 그런데 당시 여대생이 선호하는 잡지들은 교양적이라기보다 대중적이었다. 즉 ‘베스트·리딩’ 잡지로 ① 『女苑』 ② 『女像』 ③ 『主婦生活』 등의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사치스런 편집의 여성 대중지를 선호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즐겨 읽는 기사로는 ① 화보 ② 문예물 ③ 수기 ④ 가정기사 ⑤ 만화 등을 들었고 논문이 제일 인기 없는 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독서 경향에서 당시 여대생들의 독서 취향이 어떠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¹⁸⁾

그 외 대학 독서 관련으로 주목되는 기사로 “고려대학교의 교양교육” 『朝鮮日報』, 1968.10.15)에서는 국어 작문 등 연습과제에서 매월 독서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이대 책소식 첫출간”(『中央日報』, 1969.12.9)에서는 이대학보사에서 발간한 『북·리뷰』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생들의 독서를 돕기 위한 신간 안내와 세계의 독서비평 특집 등을 다룬 계간지였다.

지금까지 1960년대 학생 독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는 아동(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보다 지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의 독서에서 가장 문제시된 것은 만화 정도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각종 단체에서는 불량만화를 추방하고 양서를 읽히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신문지상에서는 아동 독서 지도를 위한 지면을 증설하고 독서 지도 방법론을 지속

17) 윤금선, 전계논문(2006), p.357.

18) 이와 대비되어 주부의 독서 실태를 드러내는 기사도 눈에 띄는데, “女性和 讀書 書店에 비친 實態”(『東日亞報』 1962.10.29), “여성과 독서”(『朝鮮日報』, 1962.10.24)는 서점가에 비친 주부의 독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설이나 스타일 북 등이 인기가 있었다.

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도 게재되곤 했는데, 주로 통계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 경향을 보여주곤 했다. 중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만화를 읽는 경우가 지배적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문학이 으뜸이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외국 문학 번역서들을 즐겨 읽고, 전문서적보다 교양서적, 오락서적을 선호하는 경향이였다. 오락서적에 대한 선호도는 여대생의 잡지 구독 판도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아래 <표 3>도 일반 독서경향과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내용에서 특징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1960년대 학생 독서경향

과정별	독서 경향	기타
어린이	[1960년대 초중기] 아동용 출판물 경향: 학습 참고서류(315종), 교양과 오락물(동화 만화 등)(108종), 판매수: 집집류(『세계명작선집』東國文化社刊, 學園社刊, 『세계소년소녀문학전집』啓蒙社)가 지배적. 어린이 잡지 『만화세계』, 『만화학생』, 『소년』	만화 애독-1960년대 전반적인 경향 [1960년대 중후반기] 아동 독서지도 강화
중고교생	[1960년대 초] 중학생(남): 만화, 소설 중학생(여): 순정소설 고등학생(남): 소설, 교양서, 위인전 고등학생(여): 애정소설, 교양서	
대학생	[1960년대 초] 외국소설 탐독(『醫師 지바고』, 『테스』, 『카라마조프의 형제』, 『죄와 벌』등). 잡지로는 『女苑』, 『思想界』, 『뉴스위크』, 『라이프』 등을 구독. 대학생 60%가 전문서적보다 취미나 교양서 애독.	[1960년대 중반] 여대생 애독 잡지: 『女苑』, 『女像』, 『主婦生活』등 여성 대중지 선호 [1960년대 말] 대학의 독서교육 강화, 서적 안내서 등장

Ⅲ. 196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

1. 도서관의 독서 운동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은 1920년대부터 설립되었다.¹⁹⁾ 인쇄술이 발달하고 그에 따라 사회에 많은 책이 나와 축적되면서²⁰⁾ 도서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서관은 이전에 책을 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에게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책의 가치는 그것을 소유하는 데서 인정되는 권위와 재보가치로부터 그것에서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가치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운동이 본격화되었으며 도서

19) 당시 경성 내에는 남대문동 '朝鮮總督府圖書館', 龍山의 '鐵道圖書館'이 있었고, 北村의 '京城圖書館', 大關亭의 '京城府立圖書館', 종로의 경성부립도서관 분관이 있었다. 특히 '京城圖書館'은 朝鮮人 중심의 거주지대인 北村에 자리하고 있었고, 조선인측 유일의 도서관이었다. 당시 도서관들은 모두 유료였다. 또한 경성 외곽에는 '인천 부립도서관'과 평양에 유일의 민간인 건립 도서관인 '仁貞圖書館'이 있었다.(윤금선, 전개논문(2005), p.152.)

20) 윤정원, "한국 근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1889-1945," 書誌學研究(서지학회), 제14집(1997), p.354.

관의 이용 주체가 지식인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어 갔다.21)



〈그림 8〉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펼치는 국민개독운동(『朝鮮日報』, 1963.9.27)

특히 1960년대는 전후 혼돈기를 지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일었고, 전대에 비하여 도서관, 장서수 등이 급증한 때이기도 하다.22)

1960년대 말 전국의 도서관 총수는 공공 대학 학교 특수도서관을 합해 3,617개소였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 수는 4,856명으로 평균 도서관당 보통 1명 또는 2명이 일을 보고 있었다. 전국 도서관 열람석 수는 229,389석, 총 장서수는 12,660,000권이였다.23) 그런데 독서 인구가 급증하면서 당시 여론에서는 공중의 사회교육 및 문학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을 더 많이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24)

당시 공공도서관은 평소에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지식의 창고이자 공부 장소로서의 기능을 담당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도서를 대출해 주고, 독서를 권장하며, 도서관 자체에서 독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정기적으로 도서관 통계를 내어 독서 경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가을 독서주간(讀書週間)25)을 실시하였다. 1927년도부터 시작된 독서주간은 해방 이후

21) 강미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7집(2002), p.7.

22) 강미혜, “도서관 관종별 연속간행물 업무의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3집(1996), p.10.

23) “형편없는 도서관”(『中央日報』, 1969.9.20).

24) “허울뿐인 공공 도서관”(『中央日報』, 1969.5.27).

25) 독서주간의 기원은 실제로 해외에서 시작되었다. “이독서주간(부크·위크)은三十八년전인 一九一九년 미국의 “보이스카우트”도서관장 “후래오 크팅·케이매슈”씨가 소년들에게 독서를장려하기위해서시초로제창제정함으로써 그후 미국도서관협회가 주동되어 청소년은 물론전국민의 독서의욕을고취하자는운동으로발전하여왔고이것이 점점각국에 보급되어 금일에와서는 전인류의 독서보급운동으로 국제적인 행사가된것이다.” “20日부터 讀書

에도 여전히 지속되었고, 1950년대 초기 전시 체제에 중단되었다가 1954년 11월 24일부터 다시 실시되었다. 독서주간 설정 목적은 도서관의 중요성과 독서의 필요성을 널리 계몽하고 이를 장려하는 데 있었다. 전후 이후로 '문교부', '도서관협회', '국립도서관'과 '대한출판협회'²⁶⁾ 등이 주최하였고, 이 기간에는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귀중본 등의 도서전시회를 열고, 출판유공자, 독서감상문 입상자, 모범 장서가 등을 표창하고, 명사들의 독서 강연회, 독서 세미나²⁷⁾, 신문좌담회, 방송좌담회²⁸⁾, 학생좌담회, 독서회²⁹⁾ 등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국민개독운동(國民皆讀運動)을 펼쳤다. 특히 이 주간에는 학생들의 독서 유도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다.

(1) 문교부는 독서주간 동안 전국 57개 공공도서관을 무료 개방, 학생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보다 많은 책을 읽도록 권장하는 한편 각 시·교육위의 협조를 얻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좋은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만화 등 불량도서를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문교부는 도서관협회와 합동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람자와 관계자 좌담회, 강연회, 전시회 등도 개최한다. 문교부는 또 독서주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 초·중·고교 학급마다 소단위 독서 "클럽"을 만들어 학교에서 선정해주는 좋은책을 읽도록 하고 도서록을 작성, 1인 1권 이상의 독서를 강제화하며 독후감 발표회도 갖도록 했다. 학급별로 도서부원을 임명, 책에 대한 애호심을 길러 파손을 막는 한편 독서실적이 우량한 학생을 뽑아 표창토록 했다.

"내일부터 讀書週間"(『中央日報』 1969.9.23)

그런데 이러한 도서관의 독서 운동은 실제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60년대 말(1969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당시 공공도서관은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모두 56개소, 시립이 22, 도립이 1, 군립이 22, 문화원 도서실이 7, 그밖에 사설이 4개소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市)에서는 도서관 혹은 도서실을 갖고 있었으나 군립은 전국을 통하여 경기도에 한하는 형편이었다.³⁰⁾ 이러한 편중 현상에 대한 비판의 기사가 여럿 보이기도 한다.

(2) 『책 속에 길이 있다. 옮겨 읽고 바로 보자』 문교부와 한국도서관협회는 24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독서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국민 개독운동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전국도서관 장서의 50"퍼센트"가 서울 시내에 집중돼 있어 농·어촌은 아직도 독서 이방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이 다독

週間"(『朝鮮日報』, 1957.10.17).

26) "마음의 糧食도 豊足히"(『朝鮮日報』, 1960.10.20).

27) "문화계소식"(『中央日報』, 1965.9.24).

28) "금년도 독서주간"(『中央日報』, 1966.9.17).

29) "독서주간"(『中央日報』, 1966.9.24).

30) "허울뿐인 공공 도서관"(『中央日報』, 1969.5.27).

경향을 보이는 정경부문의 서적구입의 부진 등으로 독서주간은 연례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 전국의 도서관 수는 지난 3월 현재 1천6백51개, 장서는 7백21만 4천4백81권으로 그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3백94만 7천9백38권이 서울 시내 도서관에 있으며 나머지도 중·소도시에 집중해 있을 뿐 벽지나 농·어촌에는 전혀 책이 없어 읽지 못하는 형편이다.

“24일부터 讀書週間”(『中央日報』, 1965.9.24)

(3) 우리의 행사엔 커다란 맹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거의 모든 행사가 도시 특히 수도 중심으로 꾸며지고, 보다 더 절실한 수혜자이어야 할 지방민들은 번번이 소외당한다는 것.(...)실상 방학 때 내려온 계몽대 학생들한테 한글을 배웠다고 별안간에 문맹의 치욕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낮 놓고 기억자인 줄 알아도, 실속 있는 읽을거리를 갖지 못하면 여전히 문맹이고, 나라 인구의 절대 다수가 바로 이 종류의 눈뜬 장님들. 그러기에 독서주간 행사는 이들 농·어 촌민들에게 책과 읽을거리를 골고루 공급하는 운동이 되어야 하고, 그 유일한 방법은 동리마다에 공공도서관을 만드는 것이다.

“公共의 書齋”(『中央日報』, 1965.9.25)

인용문들은 도서관의 도시 편중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 부족 현상, 읽을거리 없는 농어촌의 독서 실태 등을 비판하고 있는 기사들이다.

“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中央日報』 1967.5.31)에서는 ‘한국도서관의 근대화’란 주제를 내걸고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이 대회에서도 도시 중심의 도서관 설치의 문제점, 전국적인 도서관 수의 절대 부족에 대해 논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시설, 장서 실태 등의 낙후 현상, 도서관의 열람실화 경향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정책의 갱신을 요구하기도 했다.³¹⁾

1960년대의 도서관은 일제 강점기나 해방 이후와 마찬가지로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지식의 창고로서 기능하였고, 도서 대출, 독서 교육, 독서 주간 실시 등을 통해 독서 대중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도시 중심의 편중 현상은 하나의 논란거리였고 농어촌으로 독서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음에서 다룰 ‘마을문고’ 설립은 그 주장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2. 마을문고와 독서 운동

도시 편중의 도서관 설립에 대한 반론은 일제 강점기부터 있어 왔다. 당시에도 대다수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의 해결책으로 ‘독서구락부(讀書俱樂部)’를

31) 또한 이 기사문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대학·공공할 것 없이 서적의 거의 80% 이상이 해방 전의 낡은 고문서이고, ‘폐가제’의 답습으로 사실상 진정한 독서인구의 증가는 기대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한 점이다.

통한 독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독서구락부 운동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전개되었는데, 대도시에서 도서관의 독서 운동이 전개되었다면 지방 각 지역에서는 독서구락부를 통한 독서 운동이 활발하게 일고 있었다. 이 단체는 '학생계몽대'로 구성되어 주로 방학을 이용하여 활동하였다. 조선 민중의 문맹을 퇴치하고 사회 상식을 깨우쳐 주며, 조선 청년의 역할을 다한다는 총칙을 내세웠다. 농촌 계몽 계발을 목적으로 서적과 잡지를 회원에게 읽히고,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하며 '노동야학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당시 '한글운동'이 신문사의 조직적인 홍보와 운동에서 확산되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독서구락부의 활동에도 신문사가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³²⁾ 해방 직후에도 도서관은 도시 중심으로 건립되었고 '농촌 독서 운동'을 전개하자는 논의도 여전하였다.³³⁾ 이 시기 농어촌의 독서 운동도 '문맹퇴치 학생 계몽대'의 결성으로 전개되었는데 학생들의 계몽활동의 수준을 넘지 못했다.³⁴⁾

그런데 1960년대에 이르면 '마을문고' 설치³⁵⁾를 통해 독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마을문고' 운동은 1961년 연대섭의 창안으로 시작되었고 1963년 언론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비로소 본격화되었다. 문교부에서는 마을문고를 농어촌 사회교육 정책으로 입안하였고, 농촌진흥청, 농협 및 수협에서 지도사업으로, 내무부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반 행정 사업의 일환으로 삼고 있었다.³⁶⁾



〈그림 9〉 新聞會館에서 “마을文庫” 2만 돌파 기념식과 유공자 시상식(『中央日報』, 1968.3.14)

32) 독서구락부의 독서 분야는 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해도 대개 사회 사상서를 읽는 편이었다. 그 활동이 활발했던 시기 자체가 사회주의 사상이 팽배했던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으로서 당시 이 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주축층들의 이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이 1930년대 초에서 그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상상의 문제로 당시 일제의 탄압이 심했기 때문이다.(윤금선, 전개논문(2005), pp.153-163.)

33) 대표적인 논의로 “讀書運動과 農民”(1)~(4)(『朝鮮日報』, 1957.10.25-28), “讀書週間に 際하여”(『朝鮮日報』, 1959.10.19), “마을의 糧食도 豊足히”(1960.10.20) 등을 들 수 있는데, 농어촌 독서 운동의 필요성과 그 방안을 제시하는 기사들이다.

34) 이에 대해서는 윤금선, 전개논문(2006), pp.345-350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35) 이후 1970년대에는 '새마을文庫'로 이름이 바뀌어 보다 적극적으로 설치되기도 했다.

36) 새마을문고운동40년사 편찬위원회, “새마을文庫運動 40年史”(서울: 새마을문고중앙회, 2001), p.47.

(4) “마을문고운동”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그 문고수가 1만선을 깨뜨렸다. 지난 2월말 현재 “마을문고”는 전국 1만35곳에 마련되어 37만7천6백21명의 회원이 77만1천49권의 장서를 갖게 됐다.(...)문고 운영은 전남이 가장 뛰어나 당진군의 경우 2백88개 자연부락에 모두 설치되어 시범지구이다. 문고당 평균 장서수는 77권이나 최고 1천5백73권(경남통영군도산면도선마을)이 있고(...) 장서 내용이 너무 농업 도서에 쏠리면 회원의 독서습관을 붙이지 못한다는 실무자의 얘기인데 운영이 잘되는 문고일수록 문학, 교양, 아동도서의 비율이 높다. 수동 마을문고는 대부분 자체 자금으로 새 책을 사들여 부락주민은 모두 중학 졸업 이상의 실력을 갖게된 모범지구로서 처음 뜻한 바 생산지식과 문화수준을 한껏 높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된 “마을문고”의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가 “아시아”재단의 후원 아래 중앙교육연구소에서 현재 실시 중이며 주한미군 등 외국인이 마련해준 마을문고도 2백70개가 된다.

“마을문고 1만선돌파 7년에 37만회원”(『中央日報』, 1968.3.14)

위 기사는 마을문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 지방에서도 독서 습관이 붙기 시작했다는 내용이다. 마을문고 운동이 정책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전대에 주로 학생 중심의 계몽 활동으로 독서 운동이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보다 거국적인 움직임이었기 때문이다.

마을문고 운동과 더불어 ‘독서의 습관화’를 위한 독후감 모집과 시상식의 거행 등 ‘책읽기 캠페인’이 지방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³⁷⁾ 농촌에 책 보내기 운동도 함께 펼쳐졌다.³⁸⁾ 또한 독서 운동이 고조된 분위기에서 ‘대저서 읽기 운동’으로 ‘자유교양대회’가 범국민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5) 자유 교양 추진 위원회에서는 조국 근대화와 민족 주체성 확립을 위한 운동으로서 동서 고전인 대저술 읽기를 전개하고 있다. 학계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고전을 번역, 간행하여 일반에 염가로 보급하는 한편 강연회·토론회·강좌·독서회를 통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그 실천 방법으로는 중·고 및 대학 2년 수료까지 5년~8년간을 기간으로 잡고 현행 교육제도 안에서 “대저술 강좌” 및 과외 독서 계획을 따라 읽게 한다는 것. 그리고 저술은 쉬운 것으로부터 힘든 것으로 분류, 미리 선정된 1백권을 독파하도록 되었다.

“大抵書 읽기 운동”(『中央日報』, 1966.8.23)

이 대회에서는 ‘자유교양 추진위원회’에서 발간한 동서양 고전을 읽고, 그 실력을 다투는 시험을 치루었으며 각 수준별 최고 점수 획득자에게 수상을 하기도 했다.³⁹⁾ 국민학생(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를 통해 고전 읽기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⁴⁰⁾

37) “독서의 습관화”(『中央日報』, 1968.7.1).

38) “讀書週間과 農村에 책 보내기 運動”(『東亞日報』, 1968.10.25).

39) “大統領賞에 慶南탐”(『朝鮮日報』, 1968.11.26).

40) 특히 국민학교(초등학교)에서는 선정된 고전들을 의무적으로 읽혔다.



〈그림 10〉 “大著書 읽기 운동”(『中央日報』, 1966.8.23)

출판계에서도 독서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는 국민 독서 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교부, 중고교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어 독서 감상문을 모집하여 시상하기도 했고, 41) ‘생활독서위원회’와 ‘배영사’에서는 ‘문고관 생활독서’라는 이름을 내걸고 문고관 “생활독서심포지엄” 5권을 내놓았다. 전 30권 한질로 된 이 문고는 “국민이 틈틈이 책을 읽는 습관을 붙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출판되었다42)

1960년대 마을문고 운동은 도서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독서 운동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각계각층에서 독서 운동을 펼쳤다. 학교를 통한 고전읽기 운동도 활발하였고, 출판계에서도 독서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야말로 독서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라고 하겠다.

〈표 4〉는 1960년대 도서관과 마을문고의 독서운동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1960년대 도서관과 마을문고 독서운동

	도서관	마을문고
분포수 및 상황	[1960년대 말 통계] 전국의 도서관 총수(공공 대학 학교 특수도서관 포함): 3,617개소 직원 수: 4,856명, 전국 도서관 열람석 수는 229,389석, 총 장서수는 12,660,000권이었다. cf)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을 비롯하여 모두 56개소, 시립이 22, 도립이 1, 군립이 22, 문화원 도서관이 7, 그밖에 사설이 4개소.	[1960년대 말 통계] 전국 마을문고수: 10,035개, 37만7천6백21명의 회원, 771,049권의 장서수
독서운동	열람실 제공, 도서 대출, 독서 권장, 독서 교육, 도서관 통계 제시, '독서주간' 실시(도서관 무료 개방, 도서전시회, 출판유공자, 독서감상문 입상자, 모범 장서가 등 표창, 명사들의 독서 강연회, 독서 세미나, 신문좌담회, 방송좌담회, 학생좌담회, 독서회 등 개최)	독후감 모집과 시상, '책읽기 캠페인', '농촌에 책 보내기 운동' cf) 전국적인 독서운동: '대저서 읽기 운동(자유교양대회)', '대한출판문화협회' 국민 독서 운동, '생활독서위원회'와 '배영사'의 '생활독서심포지엄'

41) “독서감상문 모집”(『中央日報』, 1968.7.25).

42) “문고관 생활독서”(『中央日報』, 1969.9.30).

IV. 196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의 의의 -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 연구는 일제 강점기, 해방기, 건국기, 1950년대 독서 대중화 운동의 후속 연구로써 이후 1960년대 독서 및 독서 교육의 제반 현상들을, 주로 신문 자료를 토대로 기술함으로써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살피고자 했다.

본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60년대는 사회 전반에서 교양으로서의 '독서'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이다.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파급력을 가진 대중적 매체에 독서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게재됨으로써 독서 현상이나 독서 교육 현상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사회 전반에 이와 관련된 담론이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로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1960년대의 독서 운동과 독서 경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먼저 1960년대의 독서 경향으로써 1) 일반 독서 경향 2) 학생 독서 경향으로 대별하여 그 양상을 살폈다. 1960년대 이전의 독서 경향은 주로 도서관의 통계 제시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들어서서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은 도서관 통계뿐만 아니라 베스트셀러 조사, 설문 조사 등 실제 리서치를 통한 결과로 보다 정치한 독서 경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인의 독서 경향을 분야별로 보면 주로 어문학이 지배적이고, 일본이나 서구 번역 문학들이 애호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학생 독서 경향을 보면, 이전 시기보다 아동(어린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논의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아동들의 독서에서 가장 문제시된 것은 만화 정도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각종 단체에서는 불량만화를 추방하고 양서를 읽히기 위한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언론사에서는 아동 독서 지도를 위한 면을 증설하고 독서 지도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도 실리곤 했는데, 주로 통계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그 경향을 보여주었다. 중학생의 경우는 여전히 만화를 읽는 경우가 지배적이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문학이 으뜸이었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외국 문학 번역서들을 즐겨 읽었고, 전문서적 보다 교양서적을 선호하는 경향이였다.

둘째, 1960년대 독서 대중화운동으로서 1) 도서관의 독서 운동 2) 마을문고와 독서 운동 등을 고찰하였다. 1960년대의 도서관은 일제 강점기나 해방기 등과 마찬가지로 도시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전대에 비하여 그 수가 급증한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은 평소에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지식의 창고이자 공부 장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일반인들에게 도서를 대출해 주고, 독서를 권장하며, 도서관 자체의 독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고, 정기적으로 도서관 통계를 내어 독서 경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가을 '독서주간'을 실시하기도 했다. 독서주간 설정 목적은 도서관의 중요성과 독서의 필요성을 널리 계몽하고 이를 장려하려는 데 있었다. '문교부', '도서관협회', '국립도서관'과 '대한출판협회' 등이 주최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공공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귀중본 등의 도서전시회를 열었고, 출판유공자, 독서감상문 입상자, 모범 장서가 등을 표창하고, 명사들의

독서 강연회, 독서 '세미나', 신문좌담회, 방송좌담회, 학생좌담회, 독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며 국민개독운동(國民皆讀運動)을 펼쳤다. 그러나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판받았으며 농어촌으로 독서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설립된 '마을文庫'는 도서관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으로 독서 운동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학교를 통한 고전읽기 운동도 활발하였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독서 캠페인이 전개되었으며, 출판계에서도 독서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야말로 독서 운동이 활성화된 시기라고 하겠다. 더불어 '독서 교육' 현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독서 자체에 대한 중요성에 힘입어 '아동(어린이) 독서', '학습 독서', '교과 독서'의 개념들이 자생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중요한 담론으로 대두된 시기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1960년대의 독서 대중화 운동을 주로 신문 지면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신문사에서는 독서관의 다양한 지면 활용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독서 경향을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서를 소개하고, 독서의 방법을 알려주는 등 사회적 차원에서 독서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즉 당시 언론사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독서문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행함으로써 '어문생활(語文生活)'에 교육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사회적인 독서 교육의 장으로써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1960년대의 독서 대중화 운동을 독서경향과 독서운동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처럼 이 논문은 주로 신문 자료를 토대로 한 기술로써, 일종의 '독서 사회'의 형성 과정을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보도 자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드러내는 데만 그친 한계를 지녔다. 당대 문화적 상황과 학교 교육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조사 검토함으로써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자료들로부터 독서 현상이 독서 교육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당시의 초기 독서 교육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졌는지 보다 상세하게 기술해 보는 것도 의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기초 자료를 통해 '여성독서', '아동독서', '학생독서' 등의 갈래를 독립적으로 다루어 그 독서 현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마찬가지로 도서관 통계, 출판물의 판매 부수, 여론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독서경향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이후 그 차이점을 감안한 차별적인 분석도 필요하다. 이상의 과제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일궈나갈 본 연구자의 몫이기도 하다.

참 고 문 헌

1. 자료

『朝鮮日報』(1950~1969)

『東亞日報』(1950~1969)

『中央日報』(1960~1969)

2. 논저

강미혜. “도서관 관종별 연속간행물 업무의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덕성여자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제3집(1996), pp.1- 19.

강미혜.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변화에 관한 역사적 고찰.” 사회과학연구(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7집(2002), pp.1-21.

도서관운동연구회자료, “한국신문과 도서관” 도서관운동(도서관운동연구회), 제2권 제2호(1996), pp.31-46.

박영민. “독서 교육의 성격과 유형.” 청람어문교육(청람어문교육학회), 제31집(2005), pp.53-74.
신현재 외. 독서 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서광학술자료사, 1993.

새마을문고운동40년사 편찬위원회. 새마을文庫運動 40年史. 서울: 새마을문고중앙회, 2001.

양평, 베스트셀러로 본 우리 출판 100년, 현암사, 2001.

윤금선 “신문에 나타난 어문교육.”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0집(2002), pp.65-95.

윤금선 “근현대 국어교육 양상2.”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3집(2004), pp.439-501

윤금선. “1920-30년대 독서 운동 연구.” 한말연구(한말연구학회), 제17집(2005), pp.129-167.

윤금선. “해방 이후 독서 대중화 운동 연구.” 국어교육연구(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제17집(2006) pp.333-380.

윤정원 “한국 근대 정기간행물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書誌學研究(서지학회), 제14집(1997), pp.335-361.

이연옥. 한국 공공도서관 운동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2.

주경화. “신문매체의 출판기사 보도 편집 경향에 관한 연구.” 출판잡지연구(출판문화학회), 제3권, 제1호(1994), pp.83-102.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서울: 푸른역사, 2003.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